

개 회 사

자연만물이 모든 생명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겠다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저마다의 삶을 청명하게 이루어 가자고 발원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면 더 큰 빛을 이룰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현재를 살아가는 불제자들은 더 깊은 가르침을 더 넓은 세상으로 전하기 위해 정성을 다해 정진을 거듭해 왔습니다.

앞으로의 삶에는 훨씬 많은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곧게 이끌어 가는 힘과 희망을 가지지 못한다면, 지금의 시간은 그저 헛되이 지나가는 순간일 뿐입니다. 견고한 신심으로 마음의 근심을 없애고 우리의 삶에서 보살행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대의 공덕에 고마워하고 미래의 세대에게 보다 나은 세상을 안내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부끄럼 없이 당당히 걸어가겠다는 서원과 실천으로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어가고, 오늘을 밝히는 등불처럼 내 안을 밝히는 것을 시작으로 앞뒤 모두를 환하게 비추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밝힌 등불이야말로 사회를 소통하게 하여 편안케 하고, 어두운 마음을 환하게 하는 자비로운 손길이며 지혜로운 눈빛입니다. 마음이 풍요로운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며 정토라 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움직여 손을 내밀고 서로 배려하여 화해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똑같은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너와 내가 구분없이 모두가 주인이라는 인식과도 같은 것이며, 마음까지 편안하여 생동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뚜렷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마음에서 시작한 빛이 하나로 모여 밝은 거리를 더 넓게 열어가고, 희망

과 용기의 물결을 이루어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곳, 우리가 보려 하지 않았던 곳까지 환하게 비추어 갑니다.

더 나은 삶은 우리의 실천에 달려있습니다. 연등을 들어 올리는 마음은 곧 이웃의 손을 반갑게 잡아주는 배려입니다. 지금의 희생과 봉사가 마음의 밭에 공덕의 씨앗을 심는 것으로 여기어 함께 정진해 나아갑시다.

매일매일 걱정과 불안이 내 스스로의 욕심에서 생겨난 것임을 성찰하고, 오늘 우리가 신심으로 밝힌 찬란한 오색 연등을 향기롭게 어우러진 소중한 인연으로 다시 피어나게 합시다. 우리 모두 길벗이기에 희망과 용기가 넘치는 거리로 함께 손잡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불기2560년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